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30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김명준, 사무관 박승연 •☎ (044) 201-4740, 4504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‘쪽방, 고시원 등 거주지에 임대주택 공급 117 가구뿐’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

< 보도내용(‘20.9.30. 조선일보) >

◆ 쪽방, 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공급? 실입주 117가구뿐

- 국토부는 올해에만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5,5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입주한 가구는 1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

- 쪽방,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 실적이 1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 - 정부는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
 -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(‘16년 대비 ‘19년 공급실적 3.65배) *하여 왔습니다.
- * ‘16년 1,070호 → ‘17년 1,098호 → ‘18년 1,638호 → ‘19년 3,905호 → ‘20.8월 3,379호
- 금년에도 ‘20.8월 현재 총 3,379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, 연말까지 5,500호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□ 한편, 정부는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

○ '20.4월부터 서울, 경기 등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,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보제공, 개별상담 등을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는 “주거상향 지원사업”을 추진*하고 있으며,

○ 동 기사에서 언급한 이주지원 실적 117가구는 비주택 거주자의 전체 이주지원 실적이 아니라, 금년도에 주거상향 지원사업*을 통해 추가로 이주를 지원한 실적입니다.

* 현재 6,027건을 상담하여 709건의 공공임대 입주신청서 접수 → 주택매칭, 자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주지원 예정(117가구 입주완료)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,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□ 추진 배경

-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쪽방·고시원 등에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 거주하고 있어, 공공임대 이주지원이 시급
- 비주택 거주자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많아 정보가 부족하고,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찾아가는 1:1 상담, 주택물색, 정착 지원 등의 현장 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 필요

<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 이주부진 원인>

- 비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PC·스마트기기 등을 다루지 못하여 정보에 취약하며 이주과정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임대 이주를 기피
-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적응을 어려워하거나 이웃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떨어져 쪽방촌 등으로 회귀하는 사례 발생

□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내용

- 지자체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수요 발굴사업과 LH 전문인력의 계약주택물색 등 현장중심의 밀착지원 사업으로 구성

주요 사업	수요 발굴(지자체)	임대주택 공급(LH)	이주·정착 지원(기관협업)
	· 방문 상담 (쪽방상담소, 주거복지센터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) · 이주 희망자 발굴	· 1:1 주거지원 상담 · 주택물색, 신청 지원 · 이사 및 초기정착 지원	· 無보증금 · 이사비, 생필품 지원 · 자활·돌봄 서비스 연계
규모	· 선도지자체 11개 선정	· 이주지원 50여개팀	기관협업